

# “나만의 향기 찾는다”... 연말 맞아 향수 ‘열풍’

유통업계 ‘니치향수’ 매출 급증  
국내 시장 8천억원 규모 성장  
광주신세계, 사은품 등 마케팅  
광주 향수공방 16곳 ‘문전성시’

“계절마다 향수를 구매하고 있어요. 나만의 향기를 만들기 위해 여름용, 겨울용 등 제 이미지에 맞는 향수를 구매하고 한꺼번에 두 향수를 쓰기도 합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소비 문화가 확산하며 나만의 향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지역 백화점마다 관련 상품 매출이 늘고 있다. 개성있는 향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 지역 내 향수공방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추세다.

6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화장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높은 신장률을 보이면서 ‘니치향수’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니치향수’는 틈새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nicchia(니치아)’에서 파생된 말로, 전문 조향사가 전문 퍼퓸 하우스에서 브랜드만의 철



광주신세계가 12월 연말을 맞아 스타일별 향수 브랜드 제안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하는 등 향수 마케팅에 한창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학과 정성을 담아 탄생시킨 향수를 뜻한다. 차별화된 향을 위해 천연 향료나 희귀 성분 등 고급 원료를 사용한다. 향을 추출하는 과정이 섬세하고 복잡한 데다 소량밖에 얻을 수 없어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신세계의 화장품 매출을 살펴보면, 30.2%에 달하는 고신장률을 보이면서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쿠아 디 파르마, 딥디크, 크리드 등 고가의 프리미엄 니치향수 브랜드들 모두 두 자릿수 신장률을 보이

며 나만의 차별화된 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향수 시장 규모는 2019년 5270억원에서 지난해 7930억원 규모로 늘었다. 이 중 니치 향수 비중이 약 90%에 달하면서 높은 수요를 증명했다.

니치향수 열풍으로 지역 백화점에서는 관련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2월 연말을 맞아 스타일별 향수 브랜드를 제안하고 해당 향수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다

본관 2층에 입점해 있는 니치향수 브랜드는 크리드, 아쿠아 디 파르마, 조말론 런던, 산타마리아노벨라, 바이레도, 딥디크 등이다. 이 중 홀리데이 파티룩에 어울리는 향수 브랜드인 크리드, 아쿠아 디 파르마 매장에서 향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코스메틱 마일리지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세계 제휴카드로 화장품 브랜드를 결제할 경우 금액대별 10%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신백멤버스 가입 시 해당되며 50·100·

150·200·300·500·1000만원 이상 적립 시 5·10·15·20·30·50·100만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문화로 직접 향수를 제작할 수 있는 향수공방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지역 향수공방만 16곳에 달하고 있으며, 연말을 맞아 향수를 제작하기 위한 소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향수를 뿌린다는 김민주(28)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들과 향수를 만들기로 약속했다”며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예약이 꽉 찰 것 같아 예약도 미리 잡았다. 남들과 같은 향보다 내가 만든 나만의 향수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향수공방을 운영 중인 최민아(35)씨는 “시중 향수도 좋지 않, 더욱 특별한 향수를 만들고자 하는 손님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연말이 되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자 평달보다 매출이 2.5배 상승한다”며 “평균 2만원~5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가격에 10대 20대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inilbo.com

## 광주은행 ‘지역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한다

### 창업성장사다리펀드 3억 출자

광주은행은 (재)광주창조경제센터가 운영하는 ‘창업성장사다리펀드 Seed1호(제5호 G-IN 개인투자조합)’에 LP출자자(유한책임조합원)로서 3억원을 출자했다고 6일 밝혔다.

‘제5호 G-IN 개인투자조합’은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중 지역의 스타트업 및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향후 사업성 및 독창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들을 선발하고 투자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투자조합의 결성목표는 10억원이며, 이 중 5억원에 해당하는 LP금액 중 광주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3억원을 출자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향토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기념해 지난달 29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11월 광주창업포럼’에서 (재)광주창조경제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으며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지난 2021년, ‘광주형 일자리사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지역경제 안착을 위해 260억원을 출자함에 따라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으며, 시중은행의 출자가 전무한 가운데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몸소 실천했다.

또한 매년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선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약 90% 수준인 전체 35명 중 31명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며 지역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했다. **최권범 기자**

## 소진공, 계약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최근 소진공 내부 계약업무 규정과 매뉴얼을 학습한 생성형 AI ‘김계약 주임’을 도입해 계약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 소진공이 도입한 ‘김계약 주임’은 법령 및 업무절차 등 계약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신해 답변을 제공한다.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 150여명이 질의한 총 2187건에 대해 응답하며 높은 활용률을 보인다.

계약업무는 국가계약법과 내부지침 등 8개 이상의 법령 속지가 필요해 직원들의 법령 해석 및 업무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나 계약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해 즉

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진공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계약 주임’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사내 스타디그룹을 운영했으며 국내외 기술적용 사례 및 보안 유의사항 학습, 업무효율화 과제 공모전 등 생성형 AI 도입을 준비했다.

또 지난 9월에는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초거대 AI 활용지원사업에 선정돼 생성형 AI 플랫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고, ‘김계약 주임’ 도입에 적극 활용했다.

최근 이용 경험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70% 이상이 ‘김계약 주임’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박소영 기자**

## GGM 새 대표이사에 윤몽현 전 현대차 부사장

### 임시 주총서 선임 오늘 취임 강진 출신 해외 경험 등 풍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새 대표이사에 윤몽현(사진) 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선임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몽현 전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제3대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신임 대표이사는 7일 오전 취임식과 함께 앞으로 2년간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이끌게 됐다.

1963년 강진에서 태어난 윤 신임 대표이사는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35년을 몸담았다. 현대자동차



에서 40대 중반 이사반열에 오른 후 2012년 상무, 2016년 전무, 2018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경영전략 실장과 기획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대차 터키법인과 중국법인의 총괄경영자를 역임했다. 정책, 기획 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은 물론 풍부한 해외 경험을 쌓은 자동차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신임 대표는 7일 오전 취임식과 함께 공장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 창립과 함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광태 대표는

이날 오후 퇴임식을 열고 4년여 동안의 임기를 마쳤다.

박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이끌어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모든 임직원이 상생의 한마음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자동차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상생형 일자리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광주의 많은 젊은이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점이 가장 기쁘다”며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생산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생의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세계 최고의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 현대차, 편의사양 보강 ‘더 뉴 투싼’ 출시

### 3년 만에 부분변경 첨단 주행기술 탑재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대표 준중형 SUV ‘더 뉴 투싼’(사진)을 6일 출시했다.

더 뉴 투싼은 지난 2020년 9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다채로운 편의사양을 갖춰 국내 준중형 SUV 시장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상품성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더 뉴 투싼에 더욱 강인하고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과 신차 수준의 변화로 고급감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내장 디자인을 구현했으며,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 N 라인 모델을 함께 운영한다.

먼저 전면부는 각진 형상으로 다듬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주행등 역할을 하는 파라메트릭 주얼 히든 램프가 강인한 느낌을 전달하고 후면부의 범퍼 몰딩과



일체화된 스키드 플레이트는 가로 방향으로 확대 적용돼 차량이 보다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준다.

실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플로팅 콘솔 등을 탑재하고 수평을 강조한 설계로 넉넉한 공간감과 실용성을 확보하는 등 신차 수준으로 변화했다. 각각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가 적용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등 첨단 인포테인

먼트 기능도 제공한다.

함께 출시되는 N 라인 모델은 기본 모델에 N 라인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전용 엠블럼 포함)과 N 라인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 바디컬러 사이드 가니쉬 및 클래딩, 싱글 트윈팁 머플러 등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첨단 주행 신기술을 적용, 정숙성을 강화해 주행 감성도 높였다. 실시간으로 주행 중인 노면을 판단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테레인 모드와 고속 주행 중 강풍 발생 시 조향 및 제동 제어를 통해 고속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횡풍 안정성 제어 등 첨단 주행 기술을 탑재해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2열 사이드에는 에어백을 추가하는 등 차체 보강을 통해 전반적인 충돌 안전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를 기본 적용했다.

**곽지혜 기자**